

## “네거티브는 없다” 金 vs 閔 불 뿜는 정책 대결

〈김영록〉 〈민형배〉

### 6·3 지방선거 D-5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 투표 앞 권역별 공약·청년정책 등 ‘클린 경쟁’ 金, 지역 순회하며 맞춤형 공약 제시 閔 “재생에너지·첨단산업 성장 견인” 비방·비난 자제속 표심 공략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결선투표에 진출한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와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이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양 후보 간 정책 대결에 불이 붙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김영록·민형배 후보(가나다 순)는 본경선 종료 직후 광주·전남을 순회하며 권역별 공약과 핵심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결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영록 후보는 통합특별시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탕평과 균형’을 내세우며 광주·전남 전역을 아우르는 포용 전략과 27개 시·군 맞춤형 특화 공약 제시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는 8일 해남·강진·화순을 찾아 각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는 등 지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김영록 예비후보 측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8일 광주 서구 동천동 골목형상정거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형배 국회의원실 제공〉

김 후보는 지난 6일 가장 먼저 광주시의회를 찾아 “통합특별시를 운영함에 있어 인사와 예산, 지역 발전, 산업 배치 등에 대해 탕평과 균형을 제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년기업인·대학생 등과도 잇단 간담회를 갖고 정착 지원금, 주거·생활비 지원, 이주 청년 인센티브 등 ‘양방향 청년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7일엔 무안·목포·영암을 찾아 지역 특화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전남 서부권 민심 잡기에도 주력했다. 그는 ▲무안 전남 서남권 대표 ‘에어로 시티’ 조성 ▲목포 대한민국 해양경제 중심 대전환 ▲영암 삼호·삼포지구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지정 등 구체적인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목포·무안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인구 60만명 서남권 거점 특례도시

로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국가유산청(목포)과 농협중앙회(무안) 등 기관에 대한 목포·무안권 집중 유치 방침도 분명히 했다.

8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순천·광양을 하나로 잇는 ‘광역 여순 평화공원’ 조성 방침을 밝혔다. 제주 4·3 사례를 참고해 여순 10·19사건의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스토리 기반

국가기념관 건립과 여순사건 기념일 국가기념일 수준 격상, 여순 평화재단 및 유족회 사무처 설립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해남·강진·화순을 찾아 ▲해남 솔라시도 대한민국 AI 혁신 심장 ▲강진 글로벌 K-관광 콘텐츠 허브 ▲화순 글로벌 바이오 생태 관광산업 허브 등으로 각각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민형배 후보는 전남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민 후보는 지난 6일 전남도의회와 순천시의회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을 축으로 한 지역발전 구상을 밝혔다.

서부권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제조·설치·운영·정비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동부권은 여수 석유화학 과 광양 철강의 첨단산업 전환과 RE100 기반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튿날인 7일에는 광주시의회와 해남을 잇따라 방문해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 구상과 첨단 바이오 캠퍼스 조성, 해남 AI-에너지 메카클러스터 구축 구상을 발표했다.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 운영 방향으로 실행 중심 행정, 시민주권, AI 기반 미래행정을 제시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과 분권형 행정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2면에 계속 /변은진·양시원 기자

### 민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 8명 확정

목포 강성휘·나주 윤병태·광양 정인화·영암 우승희 강진 차영수·진도 이재각·해남 명현관·신안 박우량 장흥·화순·담양·장성 결선...여수·완도·무안 본경선

목포·나주·광양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8명이 확정됐다.

현 시장·군수가 경선에 나선 지역의 경우 대부분 후보로 선출되는 등 현직의 강세가 뚜렷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15개 시·군 기초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한 결과, 8명이 후보로 확정됐다.

2명이 경선을 치른 지역의 경우 목포시는 강성휘 후보, 나주시는 윤병태 후보, 광양시는 정인화 후보, 영암군은 우승희 후보, 강진군은 차영수 후보, 진도군은 이재각 후보가 각각 확정됐다.

3인 경선이 치러진 4곳 중 해남군에서만 명현관 예비후보가 과반을 확보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5인 경선을 치른 신안군에서는



담양군은 박종원·이규현 예비후보 등이 결선에 진출했다.

4인 경선이 진행된 장성군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상위 1·2위 득표자인 김한중·소영호 예비후보(가나다 순)가 결선에 진출했다.

7인 경선지인 여수시에서는 김영규·백인숙·서영화·정기명 예비후보 등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5인 경선 지역인 완도군은 신의준·우홍삼·지영배 예비후보 등 3명, 6인 경선이 치러진 무안군은 김산·나광국·이해차·최옥수 예비후보 등 4명이 본경선에 진출했다.

이와 함께 순천시·곡성군·구례군·함평군·영광군·고흥군·보성군 등 7개 시·군의 후보 경선은 8·9일 이틀간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 50%+일반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치러지며 10일 오전 10시 결과가 발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인 결선이 진행된다. /김재정 기자

### 美·이란, ‘2주 휴전’ 합의

미국과 이란이 전쟁 39일째인 7일(현지시간) 2주간의 휴전에 사실상 합의했다. ▶관련기사 8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0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흐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차단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란의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와 교량 등에 대한 공격을 경고했다가 유예하기를 반복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폭격과 공격의 중단’, ‘휴전’ 등을 언급하며 2주 동안은 에너지 인프라 수준을 넘어선 전면적 휴전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2026 화순 봄꽃축제

2026.4.17.(금) — 4.26.(일)

15:00 — 21:00 (10일간) / 화순읍 꽃강길 및 남산공원 일원

화순군 Hwasun-gun

봄꽃야행 (주간)

문의 | 061.379.3575~7